

##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타당화\*

김 원 희            이 동 형\*            김 문 재            남 윤 주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에 따라 구분한 사회적 위축의 3가지 하위유형(수줍음, 비사교성, 회피)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Bowker와 Raja(2011)의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와 Nelson(2013)의 Emerging Adult Social Preference Scale의 문항들을 국내의 청소년에 맞게 번안한 후,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 소재한 11개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985명에게 실시하여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고립, 회피, 수줍음, 비사교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번의 모형 수정을 거쳐 총 20문항, 4요인의 최종 모형을 확정하였으며, 경쟁모형들과 비교하였을 때 4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은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또한 적절하여 사회적 선호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관련되면서도 구분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각 하위요인 척도는 우울, 대인불안, 외로움, 괴롭힘 피해 등 사회정서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준거변인들과 예측되는 양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기존의 사회적 위축 척도(K-YSR)와 적절한 상관을 보여 개발된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하위요인은 가장 유사한 구인을 측정하는 척도와는 보다 높은 상관을 보이고, 유사성이 낮은 구인을 측정하는 척도들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 적절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의 증거를 제공하였다. 끝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의의, 시사점,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적 위축, 사회적 고립, 수줍음, 회피, 비사교성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동형,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길 63번길 2  
Tel : 051-510-2638, E-mail : lepsy@pusan.ac.kr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포괄적 용어로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울 및 불안과 함께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Coplan & Rubin, 2010). 사회적 위축은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혼자 있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과 태도로 다양한 기저의 원인에서 유래하는 ‘홀로 있는’ 행동의 원형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포괄적 개념이다(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Rubin, Coplan, & Bowker, 2009). 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청소년은 흔히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경향이 있어서 집단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미숙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게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화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며, 또래집단으로부터 쉽게 거부당하기도 한다(Hymel & Rubin, 1985).

사회적 위축이 또래거부 등으로 인하여 쉽게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과는 구별된다(Rubin & Mils, 1988).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라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사회적 위축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거부나 배척 등 외재적,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해 사회적 상호작용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sendorpf(1990)는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행동을 보이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주목하면서, 사회적 ‘접근동기’ 및 ‘회피동기’라는 이론적 개념을 근간으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수줍음(shyness), 비사교성(unsociability), 회피(avoidance)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줍음은 사회적 상호작용 장면에 대

한 접근동기를 가지는 동시에 회피동기도 함께 경험하면서 내적 갈등을 빚게 되어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유형으로, 과도한 경계, 불안,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고 높은 수준의 부적정동이나 우울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plan et al., 2013). 반면, 비사교성은 수줍음과 달리 접근동기와 회피동기가 모두 낮아 사회적 상호작용 상황을 특별히 회피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는 하위유형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기대가 낮고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맺거나 관계형성에 무관심한 특징을 보인다(Nelson, 2013). 끝으로, 회피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접근하려는 동기가 낮은 반면, 회피하려는 욕구가 높아 의도적으로 혼자 있고자 하는 특징을 보이는 유형으로 수줍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정서적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oplan et al., 2013).

사회적 접근 및 회피동기 모델에 기초하여 사회적 위축을 이와 같이 하위유형으로 구분하는 접근(Asendorf, 1990)은 아동초기(Coplan, Prakash, O'Neil, & Armer, 2004)와 아동중기(Coplan et al., 2013) 및 초기 청소년기(Bowker & Raja, 2011)의 사회적 위축 연구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초기 성인기에 있는 대학생 집단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elson, 2013). 또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구분의 타당성과 유용성은 북아메리카(Coplan et al., 2013; Nelson, 2013)뿐 아니라 터키(Özdemir, Cheah, & Coplan, 2015), 인도(Bowker, Markovic, Cogswell, & Raja, 2012; Bowker & Raja, 2011), 중국(Liu et al., 2014) 등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수행된 최근의 연구들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사회적 위축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심리

사회적 부적응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잘 밝혀진 바 있으며 (Rubin, Coplan, & Bowker, 2009), 최근에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부적응의 양상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기 또래배척(peer exclusion)은 모든 유형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되지만, 또래괴롭힘 피해(peer victimization)는 특히 수줍음이나 비사교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owker, Markovic, Cogswell & Raja, 2012; Bowker & Raja, 2011). 우울, 외로움, 불안, 부적응 등의 정서적 부적응 또한 세 유형의 위축과 모두 정적상관을 보이지만 (Bowker & Raja, 2011; Nelson, 2013), 불안은 특히 수줍음과 높은 상관을 보이며(Coplan et al, 2004; Coplan & Weeks 2010), 자존감 저하는 수줍음 및 회피에 국한하여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2013).

또한 하위유형에 따라 사회적 위축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수줍음형, 비사교형, 회피형 집단으로 구분하고 비위축 집단과 비교한 국외의 연구들(Coplan et al., 2013; Nelson, 2013)에서는 비사교형의 위축 청소년들이 보이는 내재화 문제의 양상이 비위축 청소년들과 큰 차이가 없으며, 회피형 청소년들이 가장 광범위한 사회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경우에도 수줍음형이나 회피형의 대학생들은 비사교형 위축 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하게, 국내의 연구(윤미설, 이동형, 2015)에서도 수줍음형 집단이 가장 높은 수준의 우울, 대인불안, 외로움을 보였으며, 비사교형 집단은 수줍음형 집단 보다는 낮지만 대인불안에서, 회피형 집단은 외로움에서, 비위축 집단이나 나머지 하위유형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에 따른 부적응 양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을 하위유형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위유형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적응 결과에 대한 실증연구들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지만, 현재 사회적 위축 자체의 세부적 특징이나 하위유형에 주목한 국내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박기원, 2014; 신현숙, 송중화, 김현주, 2005). 특히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의 특징을 이해하고 위축 청소년들이 보이는 심리적 특징을 기술하기에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 기반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이봉주 외, 2014), 이는 사회적 위축에 대한 국내의 연구들이 주로 아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에 대해서는 그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적절히 측정할 수 있는 심리척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위축 척도에는 K-CBCL(Child Behavior Checklist), K-YSR(Youth Self-Report), SCBE(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등이 있다. 먼저, K-CBCL은 만4세에서 17세의 아동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부모평정척도로,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하고, 오경자, 이해련, 하은혜, 홍강의(1997)가 표준화하였다. K-CBCL의 여러 하위척도 중 ‘위축’ 척도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말을 하지 않으려는 편이다’ 등의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인 위축, 소극적 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

고식 척도가 보다 신뢰로울 수 있음을(Kazdin, 1986)을 감안한다면, 타인평정방식의 K-CBCL을 통해서만 내재화 문제의 하나인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타인평정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CBCL의 자기보고식 척도인 K-YSR(Youth Self-Report)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K-YSR은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개발하고 Achenbach와 Rescorla(2001)가 재개정된 것을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200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로, 이러한 K-YSR의 자기보고식 평정을 통해 청소년은 자신의 내적 상태와 행동을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K-YSR의 '위축' 척도 역시 총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수줍음, 회피, 비사교성과 같은 사회적 위축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이 척도는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잘 털어놓지 않는다.' 등 우울 증상을 나타내는 문항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순수하게 사회적 위축을 측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끝으로, SCBE는 사회적 유능성 및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LaFrenier와 Dumas(1996)가 개발한 교사평정척도로, 국내에서는 김혜연(2008)이 번안하였으며, 총 30문항 중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 활동 시 다른 사람과 말이나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 '집단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와 같이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나 관찰 가능한 모습을 묘사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척도 역시 '걱정한다.', '소심하고 두려워하며 새로운 상황을 피한다.', '스릅

고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하다.', '얼굴에 표정이 없고, 미소를 짓거나 웃지 않는다.', '피곤해한다.'와 같이 사회적 위축에 동반되는 불안이나 우울관련 행동특성을 나타내는 문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항 수 또한 적어서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반영하거나 사회적 위축 이면의 동기를 측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현재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척도들은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다른 내재화 문제와 혼합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적 위축을 정밀하게 측정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문항 수가 적어 사회적 위축 이면의 다양한 동기나 하위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의 사회적 위축 행동 및 관련 동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는 아직 없었다. 발달적으로 청소년기는 '홀로 있음'의 유익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점차 사생활과 홀로 있는 능력과 필요가 증가하는 시기(Larson & Lee, 1996)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적 위축이 나타나는 이면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동기와 그에 따른 하위유형을 파악하여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이나 고립의 발달적 양상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사회적 위축을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해 Bowker와 Raja(2011)의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CSPS-R)와 Nelson(2013)의 Emerging Adult Social Preference Scale(EASPS) 같은 자기보고식 도구들이 개발되어 현재 활용되고 있다. 이 척도들은 원래 부

모 및 교사평정척도로 고안된 아동용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CSPS; Coplan, Prakash, O'Neil, & Amer, 2004)을 자기보고식으로 수정하여 청소년용과 대학생용으로 타당화한 척도로,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 모델(Asendorf, 1990)에 기초하여 구분한 사회적 위축의 3가지 하위유형(수줍음, 비사교성, 회피)을 측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위축과는 별도로 사회적 고립 또한 측정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두 척도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문항들을 상당수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용(CSPS-R; Bowker & Raja, 2011)이 먼저 개발되었고 이를 기초로 일부 문항들이 수정·보완되어 대학생용 척도(EASPS; Nelson, 2013)가 후속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에 따라 구분한 사회적 위축의 3가지 하위유형(수줍음, 비사교성, 회피) 및 사회적 고립을 함께 측정하도록 구성된 Bowker와 Raja(2011)의 CSPS-R과 Nelson(2013)의 EASPS의 문항들을 국내의 청소년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척도의 원 문항을 번역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내적일치도 분석, 요인 간 상관 및 적절한 준거변인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준거관련타당도를 확인하고,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울산, 경남, 경북에 소재한 11개 중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98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개의 표본으로 나누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모든 조사에 앞서 학교의 담당교사 및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비밀보장,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학생들의 구두 동의를 받아 담당교사가 직접 감독하는 가운데 학급 단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 측정도구

####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개정판

이 척도(CSPS-R;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는 어린 아동의 사회적 위축과 고립을 평가하기 위해 부모 및 교사평정용으로 개발된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CSPS; Coplan et al., 2004)을 청소년용 자기보고식 척도로 타당화한 것으로, Bowker와 Raja(2011)가 개발하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성별	표본 1	표본 2	표본 3	표본 4
남	174	185	85	64
여	143	188	84	56
미기재	6			
합계	323	373	169	120
합계	323	373	169	120

주. 표본 1: EFA, 표본 2: CFA 및 준거관련 타당도, 표본 3: 수렴 및 변별타당도, 표본 4: 검사-재검사 신뢰도

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 유형인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와 사회적 고립을 측정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Bowker와 Raja(2011)의 연구에서 얻어진 원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하위 요인별로 .65 - .84로 나타났다.

#### 대학생용 사회적 선호 척도

이 척도(Emerging Adulthoo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는 Bowker와 Raja(2011)의 CSPS-R을 Nelson(2013)이 대학생에게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5점 리커트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Nelson(2013)의 연구에서 얻어진 원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하위요인별로 .62 - .91로 나타났다.

#### CES-D 우울 척도

이 척도는 Radloff(1977)가 성인을 대상으로 우울증을 선별해내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 Garrison, Addy, Jackson, Mckeown과 Waller(1991)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CES-D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0: 극히 드물게/ 1일 이하 ~ 3: 거의 대부분/5-7일)를 사용하여 0-60점으로 채점된다. 전경구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 SAS-A 대인불안 척도

이 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는 La Grace와 Stone(1993)이 개발하고 한상희와 박경(2005)이 타당화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에서 지각하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18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 전혀 아니다~5: 항상 그렇다)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불안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한상희와 박경(200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청소년 외로움 척도

청소년 외로움 척도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정화와 김진숙(2014)이 개발한 척도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식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를 사용한다. 허정화와 김진숙(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3이었고, 3개 하위요인별로는 .81-.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90으로 나타났다.

#### Olweus 괴롭힘 척도

Olweus(2007)가 1993년에 개발, 2007년에 최종 개정한 Olweus Bullying Questionnaire(OBQ)의 일부 문항을 이동형(2014)이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식 5점 척도(1: 전혀 없었다~5: 일주일에 여러 번)를 사용하였다. 윤미설과 이동형(201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괴롭힘 가해 .71, 괴롭힘 피해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괴롭힘 가해 .76, 괴롭힘 피해 .81로 나타났다.

#### 개정판 Cheek과 Buss 수줍음 척도

이 척도(Revised Cheek & Buss Shyness Scale: Cheek & Buss, 1981)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근영(1994)이 번안하고 노혜숙(1997)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근영(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1로 나타났다.

### 고독선호 척도

Burger(1995)가 고안한 고독선호 척도 (Preference for Solitude Scale)를 임아영(2010)이 번안하여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과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Burger(1995)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로 나타났다.

###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Watson과 Friend(1969)가 제작한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를 이정윤과 최정훈(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원문에서는 진위형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나 한국판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되어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이정윤과 최정훈(199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일반인의 경우 .92, 대학생 .92, 사회공포증환자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는 사회적 불안과 사회적 회피를 측정하는 총 28문항 중에서 '사회적 회피'요인에 해당하는 14문항만을 사용하였고,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외톨이 성향 척도

이시형 등(2000)이 제작한 척도로 또래로부터의 소외와 외로움을 측정하는 문항 7개, 사회적 유능감을 측정하는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체육시간, 단체 활동에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외와 외로움' 척도만을 사용하였으

며, 이규미(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3,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 K-YSR 위축 척도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개발하고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200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Korean version of Youth Self Report)의 '위축'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119개 문항 중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은 7개 문항이며, 오경자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 연구절차

#### 척도번안 및 예비척도 구성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Bowker와 Raja(2011)가 개발한 CSPS-R의 15문항과 이를 대학생용으로 개정한 Nelson(2013)의 EASPS 20문항을 번안하였다. 문항번역을 위해 먼저 연구자 1인과 3명의 대학원생이 두 척도의 문항 원문을 독립적으로 번역한 후 서로 다른 번역본을 비교, 대조하여 1차 번역본을 구성하였다. 이후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심리학 교수 1인이 1차 번역본을 역번역(back translation)하고 이를 다시 원문과 대조하면서 문항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2차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2차 번역본을 남녀 중학생 2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가독성과 이해도를 확인하고,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 등 문항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최종 번역본을 완성하였다. 번안된 두 척도의 문항 중 내용 상 대등하지만 발달적 차이를 반영한 문항(예: 'kids' vs. 'people', 'playing with other kids' vs. 'working with others')

등)은 청소년에게 적합한 1문항만 유지시키고 다른 문항은 제외시켜 총21문항의 예비척도로 재구성하였다.

### 자료수집 및 분석

먼저 1차 자료 수집을 통해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한 323명의 데이터(표본1)를 예비척도 21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분석 및 사각회전 방법인 직접 오블리민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2차로 수집된 373명의 데이터(표본2)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교차타당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및 요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으며,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 및 사회적 고립과 사회정서적 부적응의 지표들(우울, 불안, 외로움, 괴롭힘 피해 및 피해)과의 상관분석을 통해서 준거관련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였다.

이후 추가로 수집한 169명(표본3)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 있는 사회적 위축 및 각 하위유형, 고립 등과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 국내의 기존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끝으로, 120명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주일 간격 2회에 걸쳐 설문을 실시하여(표본4)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위축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에는 AMOS 20.0을 사용하였고,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타당도 분석은 SPSS18.0을 사용하였다.

## 결 과

### 탐색적 요인분석

한국판 사회적 선호 척도 예비척도 21문항에 대해 공통요인분석 및 사각회전(직접 오블리민)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및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KMO가 .917로 .70의 이상의 기준을 충족시켰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또한  $p < .05$ 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에 scree plot의 형태 및 고유값(eigenvalue), 공통성, 누적설명변량, 내적합치도 계수, 요인부하량과 교차부하량 등을 검토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1문항에 대한 요인행렬 및 요인부하량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요인부하량은 .56에서 .86의 범위를 나타내 요인부하량 .40이상을 권고하는 기준(송지준, 2015)에 부합하였으며, 특정 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다른 요인과는 0에 가까운 요인부하량을 가져 해석에 용이한 구조(장승민, 2015)로 나타났다. 4개의 요인은 고립(5문항,  $a = .92$ ), 회피(4문항,  $a = .83$ ), 수줍음(6문항,  $a = .87$ ), 비사교성(6문항,  $a = .84$ )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요인별로 고립은 39.42%, 회피는 13.43%, 수줍음은 7.30%, 비사교성은 6.78%의 설명량을 가지며 4개의 요인은 총 변량의 66.92%를 설명해준다.

###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21문항 4요인 구조가 다른 독립적 표본에서도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표본 2( $n=373$ )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분석에서 문항2번의 표준화계수가 .408로 낮아 이 문항이 해당요인을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영향력

표 2.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및 평균과 표준편차 (표본 1, n=323)

문항	요인				M	SD	공통성
	고립	회피	수줍음	비사교성			
9	0.84	0.02	0.07	-0.01	1.46	0.69	0.79
1	0.81	0.00	-0.04	-0.02	1.49	0.75	0.61
5	0.79	0.05	0.06	0.03	1.53	0.77	0.73
13	0.78	-0.05	0.00	0.18	1.56	0.83	0.76
12	0.58	0.06	0.18	0.17	1.53	0.84	0.66
19	-0.01	0.86	0.09	-0.07	1.96	1.03	0.71
15	0.04	0.79	-0.01	-0.03	2.02	1.06	0.62
7	-0.06	0.68	-0.02	0.05	2.09	1.14	0.47
3	0.00	0.65	-0.05	0.06	2.09	0.97	0.46
20	0.03	0.04	0.85	0.04	1.81	0.91	0.79
21	-0.06	0.00	0.79	0.09	1.91	1.04	0.65
17	-0.11	-0.02	0.69	0.01	2.70	1.32	0.40
4	0.27	0.04	0.67	-0.06	1.83	0.97	0.68
16	0.30	-0.03	0.58	-0.05	2.02	1.10	0.57
8	0.17	0.05	0.48	0.08	1.58	0.88	0.42
14	0.16	0.09	-0.13	0.75	1.67	0.94	0.70
6	-0.06	0.06	0.06	0.72	1.97	1.05	0.57
2	-0.05	-0.01	-0.02	0.62	2.80	1.18	0.34
18	-0.02	-0.06	0.07	0.59	2.08	1.02	0.34
10	0.19	0.10	0.06	0.59	1.44	0.80	0.62
11	0.15	0.10	0.07	0.56	1.50	0.82	0.53
분산 (%)	39.42	13.42	7.30	6.78			
KMO(Kaiser-Meyer-Olkin)			.91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Square	3927.077	
					df(p)	210(.000)	

이 작다고 판단하여, 2번 문항을 삭제한 후 총 20문항에 대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측정모형 평가결과는 표 3과 같다.

CFI=.920, TLI=.908, RMSEA(90% 신뢰구간)=.073(.066~.080)으로 RMSEA 지수가 .08보다 작고 CFI, TLI지수가 .90이상(Hair, Black,

표 3.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측정모형 평가 결과 (표본 2, n=373)

문항 번호	내적합치도		사회적 선호 척도의 하위요인 및 문항 간 상관				CFA 타당도 측정결과					
	요인별	문항 삭제시	고립	회피	수줍음	비 사교성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P	표준화 계수	
고 립		.90	.86***	.26***	.51***	.53***	1.000				.832	
	1	.90	.87***	.22***	.50***	.47***	1.137	.061	18.77	.000	.815	
	5	.92	.90	.88***	.30***	.52***	.55***	1.149	.057	20.20	.000	.855
	13	.90	.90	.89***	.29***	.46***	.56***	1.251	.061	20.42	.000	.861
	12	.91	.91	.85***	.27***	.60***	.57***	1.131	.060	18.92	.000	.819
회 피		.75	.27***	.83***	.20***	.36***	1.000				.811	
	15	.82	.78	.24***	.81***	.10	.33***	.978	.070	13.94	.000	.748
	7	.82	.79	.23***	.79***	.03	.43***	.905	.072	12.60	.000	.676
	3	.82	.78	.25***	.80***	.08	.31***	.889	.068	13.01	.000	.697
수 줍 음		.81	.45***	.14**	.82***	.30***	1.000				.801	
	21	.81	.81	.50***	.17**	.82***	.41***	1.059	.063	16.93	.000	.817
	17	.85	.86	.25***	-.09	.66***	.14**	.784	.083	9.45	.000	.495
	4	.85	.81	.56***	.12*	.81***	.27***	1.084	.067	16.07	.000	.782
	16	.85	.82	.52***	.10*	.79***	.34***	1.101	.074	14.91	.000	.736
비 사 교 성		.84	.46***	.19***	.65***	.40***	.625	.054	11.46	.000	.589	
	14	.84	.74	.58***	.38***	.36***	.80***	1.000			.776	
	6	.84	.76	.45***	.41***	.25***	.79***	.953	.077	12.31	.000	.650
	18	.82	.80	.31**	.19**	.22**	.72**	.760	.084	9.81	.000	.490
	10	.82	.77	.51***	.33***	.37***	.71***	.730	.053	13.65	.000	.715
11	.82	.75	.53***	.41***	.36***	.77***	.821	.053	15.38	.000	.800	

적합도 지수:  $\chi^2=488.547$ ,  $df=164$ , CFI=.920, TLI=.908, RMSEA(90% CI)=.073(.066 ~ .080)

\*\*\* $p < .001$ , \*\* $p < .01$ , \* $p < .05$

Babin & Anderson, 2010)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할 만한 모형적합도를 나타냈다. 또한 신뢰도 분석 결과, 각 문항은 그 문항이 속한 상위 유형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 계수는 .82~.92로 적절하였다. 문항 제거 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17

번 문항 삭제 시 미미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대체로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에서 비표준화 계수의 C.R.(critical ratio)값은  $p < .05$ 기준에서 1.96이상을 충족하므로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대체로 문항들이 표준화 계수 값 .50이상을

충족(우종필, 2012)하므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집중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인모형 비교

모형 간 상대적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기 위해 4요인 모형과 이에 대한 경쟁모형으로 3요인 모형, 2요인 모형, 단일요인 모형을 설정하여 각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3요인 모형 중 model2는 수줍음과 비사교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고, model 3은 고립과 수줍음을, model 4는 고립과 비사교성을 model 5는 회피와 비사교성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모형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2요인 모형인 model 6은 비사교성과 회피, 수줍음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고, model 7은

모든 요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었다. CFI, TLI 등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해볼 때, 4요인 모형이 .9이상의 수치를 보였고, RMSEA값 역시 4요인 모델만이 유일하게 .08이하의 적합한 수치를 나타냈다.

나머지 경쟁모형은 모두 CFI, TLI값이 .90이하, RMSEA 수치가 .10이상을 나타내 적합한 기준(CFI, TLI >.90, RMSEA<.10; 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척도의 요인구조는 원척도들과 동일하게 4요인 모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하위요인 간 상관

사회적 선호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

표 4.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4요인 모형과 경쟁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비교 (표본 2, n=373)

	$\chi^2$	df	CFI	TLI	RMSEA (90%신뢰구간)
<u>4요인 모형</u>					
Model 1	488.55	164	.920	.91	.07 (.066~.080)
<u>3요인 모형</u>					
Model 2	968.61	167	.803	.78	.11 (.107-.121)
Model 3	889.26	167	.823	.80	.11 (.101-.115)
Model 4	743.15	167	.859	.84	.10 (.089-.103)
Model 5	797.15	167	.845	.82	.10 (.094-.108)
<u>2요인 모형</u>					
Model 6	1377.13	169	.704	.67	.14 (.132-.145)
<u>1요인 모형</u>					
Model 7	1586.84	170	.653	.61	.15 (.143-.156)

주 2. Model 1: 4요인(20문항). Model 2: 고립, 회피, 수줍음+비사교성. Model 3: 회피, 비사교성, 고립+수줍음. Model 4: 회피, 수줍음, 고립+비사교성. Model 5: 고립, 수줍음, 회피+비사교성. Model 6: 고립, 비사교성+회피+수줍음. Model 7: 고립+비사교성+회피+수줍음

표 5. 사회적 선호 척도 하위요인 간 상관 및 사회정서적 부적응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표본 2, n=373)

	고립	회피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	.31***	-		
수줍음	.60***	.13*	-	
비사교성	.61***	.44***	.40***	-
우울	.38***	.25***	.32***	.30***
대인불안	.52***	.08	.67***	.33***
외로움	.52***	.40***	.40***	.35***
괴롭힘 가해	.15*	.01	.09	.09
괴롭힘 피해	.32***	.07	.13*	.21***

\*\*\* $p < .001$ , \*\* $p < .01$ , \* $p < .05$

은 표 5와 같다. 모든 하위요인들이 .13~.61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회피-수줍음 간의 상관이 낮은 반면(.13), 수줍음-고립(.61), 비사교성-고립(.60) 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사교성과 수줍음(.40) 및 회피(.44) 간의 상관은 중간크기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이처럼 사회적 선호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70이하로 나타나는 유의한 정적상관은 각 하위요인이 유사한 구인을 측정하지만, 동시에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임을 보여준다.

#### 하위요인과 사회정서적 부적응 지표 간의 상관

다음으로 사회적 선호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선행연구들에 기초하여 선정된 준거변인들과 예상되는 양상의 상관을 보이는지 검토함으로써 준거관련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준거변인은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 및 고립과 관련되는 사회정서적 부적응의 지표들이 사용되었으며, 우울, 대인불안, 외로움, 괴롭힘 가해 및 피해가 포함되었다. 선행연구들(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04; Coplan & Weeks, 2010; Nelson, 2013)에 기초하여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위축은 우울, 대인불안, 외로움, 괴롭힘 피해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하위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컨대, 대인불안의 경우 수줍음과 가장 높게 상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외로움은 비사교성과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괴롭힘 피해는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상관을 보일 수 있지만, 괴롭힘 가해는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과 상관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립은 우울, 대인불안, 외로움, 괴롭힘 가해, 피해 등 모든 사회정서적 부적응 지표들과 모두 낮거나 중간수준(.15~.52)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사회적 위축의 경우 하위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여, 수줍음과 비사교성은 괴롭힘 가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준거변인들과 유의한 상관(.13~.67)을 보였고, 수줍음은 대인불안과 특히 높은 상관(.67)을 보였다. 하위요인과 외로움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해 볼 때 비사교성 과의 상관이 제일 낮으며(.35), 괴롭힘 가해는 사회적 위축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고, 고립과는 낮은 상관(.15)을 보였다. 한편, 회피는 우울(.25) 및 외로움(.40)과는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대인불안이나 괴롭힘 가해, 피해와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전반적으로, 준거 변인들과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선행연구에 기초한 양상과 전반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선호 척도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과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사회적 위축의 3가지 하위유형과 고립은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기 위해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K-YSR과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발된 척도의 적절한 준거관련(공인)타당도를 지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선호 척도의 하위요인인 ‘고립’의 경우 외톨이성향척도 중 ‘소외와 외로움’척도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으며(.82), ‘회피’의 경우 사회적 불안 및 회피 척도 중 ‘사회적 회피’ 요인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64)을 보였고, ‘수줍음’ 역시 Cheek과 Buss(1981)의 수줍음 척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77)을 나타냈다. 비사교성의 경우 Burger(1995)의 고독선호 척도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69)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표 6의 상관분석 결과는 사회적 선호 척도의 특정 하위요인이 측정하는 구인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개념을 다른 도구로 측정했을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하위요인 점수와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사회적 선호 척도의 특정 하위요인과 유사성이 보다 낮은 구인의 기존 측정치들과의 상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가 적절한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표본 4, n=120) 1주 간격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표 6.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와 관련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표본 3, n=169)

	중학생용 한국판 사회적 선호 척도			
	고립	회피	수줍음	비사교성
외톨이 성향 척도 중 ‘소외와 외로움’	.82***	.58***	.51***	.68***
사회적 및 불안 척도 중 ‘사회적 회피’	.63***	.64***	.66***	.59***
Cheek과 Buss 수줍음 척도	.53***	.46***	.77***	.47***
Burger 고독선호 척도	.43***	.54***	.30***	.69***
K-YSR 중 ‘위축’	.59***	.49***	.65***	.56***

\*\*\* p<.001

사회적 선호 척도를 반복 실시하여 상관을 구한 결과 전체 총점의 상관은  $r=.88(p<.001)$ 로 적절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고립  $r=.83(p<.001)$ , 회피  $r=.63(p<.001)$ , 수줍음  $r=.83(p<.001)$ , 비사교성  $r=.77(p<.0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선호 척도에서 측정된 점수가 적어도 1주일 간격으로 측정할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는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에 따라 구분한 사회적 위축의 3가지 하위유형(수줍음, 비사교성, 회피)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을 함께 측정하도록 개발된 Bowker와 Raja(2011)의 Child Social Preference Scale-Revised와 Nelson(2013)의 Emerging Adult Social Preference Scale의 문항들을 국내의 청소년에 맞게 번안하여 타당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4개의 독립표본(총 985명)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논의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owker와 Raja(2011)의 척도 및 Nelson(2013)의 사회적 선호 척도의 문항들을 취합하여 국내의 청소년에게 번안하여 예비척도를 구성하고 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립, 회피, 수줍음, 비사교성의 4요인이 도출되었다. 원척도와 비교하여 요인 수는 동일하였으나 각 문항이 속하는 하위유형이 달라진 경우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1번 문항(‘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혼자 노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의 경우 원척도에서는 ‘회피’ 요인에 속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사교성’ 요인에 소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Bowker와 Raja(2011)의 결과와 비교하면, 원척도 개발 연구에서 이 문항은 요인부하량이 .38에 불과하였고 비사교성 요인에의 교차부하량도 .31이어서 요인부하량 .40이상 및 교차부하량 .30이하를 권고하는 일반적인 기준(송지준, 2015)에 부합되지 않지만, 원척도 개발자들의 판단 하에 유지한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에서 이 문항이 중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항이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 문항이 국내 중학생들에게 적용되었을 때에는 회피보다는 오히려 비사교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마도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싫어한다.’는 직접적인 진술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고자 동기화된 회피요인 보다는 접근하려고 하지도 않지도 않지만,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는 ‘비사교성’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12번 문항(‘다른 아이들이 놀 때, 나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맴돌기만 한다.’)의 경우 원척도에서는 ‘수줍음’에 속한 문항이었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척도에서는 ‘고립’을 보다 잘 측정하는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문(“I stand near where other kids are playing without joining in.”)을 한국적인 표현(‘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에 맴돌기만 한다.’)으로 의역하면서 원문과의 의미 차이를 초래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국내의 청소년들은

이 문항을 수줍음과 같은 자신의 내적 갈등(접근-회피 간의)에 의해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함께 어울리고 싶지만 또래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거부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변에 맴돌기만 하는’ 고립의 상황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인의 개별성보다는 집단과의 융화와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의 집단주의적 특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 문항이 설정한 상황을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 한국판 척도와 원척도와의 이러한 차이는 사회적 유능성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사회적 행동이 문화특정적 단서나 해석에 매우 민감한 변인이라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Chen & French, 2008; Rubin, Coplan, & Bowker, 2009)을 잘 예시하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표본 2를 대상으로 표본 1에서 나타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4요인 모형이 다른 대안모형과 비교할 때 제일 적합하다는 결과를 통해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의 구성(요인)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한국판 사회적 선호척도의 이러한 4요인 모형은 원척도 개발 연구(Bowker & Raja, 2011; Nelson, 2013)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사회적 선호 척도는 각 하위척도별로 모두 적절한 내적 합치도를 보였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 및 사회적 위축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 .13 ~ .61 범위의 정적상관을 보였는데, 회피-수줍음, 회피-고립 간의 상관이 비교적 낮고, 수줍음-고립, 수줍음-비사교성 간의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척도 개발 연구(Bowker & Raja, 2011)에서 보고되었던 .16 ~

.56 범위의 상관과 매우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선호 척도의 하위척도들이 신뢰로운 측정치를 제공하며, 측정하는 각 구인이 상호관련되지만 구분가능한 개념임을 보여주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구성타당도에 대한 추가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선호 척도의 하위요인과 사회정서적 부적응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는 준거 변인들, 즉 우울, 대인불안, 외로움, 괴롭힘 피해 및 피해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고립은 모든 사회정서적 부적응 지표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사회적 위축의 경우 하위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의 선행연구들(Bowker & Raja, 2011; Coplan et al., 2004; Coplan & Weeks, 2010; Nelson, 2013)에서 보고된 것과 일치하는 양상의 결과를 보여주어 준거관련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사회적 위축 및 사회적 위축의 하위요인들과 유사한 구인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확인한 결과, 각 하위요인은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측정하는 기존의 K-YSR 위축척도 점수와 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여 준거관련(공인)타당도의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더욱이 각 하위요인별로 해당하는 유사척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반면, 개념적으로 유사성이 보다 낮은 다른 하위척도들과의 상관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남으로써, 수렴 및 변별 타당도의 증거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번안하여 개발한 한국판 사회적 선호 척도는 일부 문항의 경우 원척도와 요인 소속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 구조를 보여 수

좁음, 비사교성, 회피의 3가지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과 사회적 고립을 포함하는 4개의 관련 구인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자기보고식 도구가 부족했던 국내의 실정에서 외국에서 최근 개발된 사회적 위축 척도를 번안하여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더욱이 사회적 위축에 대한 외국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접근 및 회피 동기(Asendorf, 1990)를 고려한 사회적 위축의 세 가지 하위유형을 구분하여 측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과 종종 혼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론적, 개념적, 실제적 측면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는 사회적 고립 또한 같이 측정할 수 있는 청소년용 도구를 개발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사회적 선호 척도는 사회적 위축의 하위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적 위축 측정 도구에서 찾을 수 없었던 독특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사회적 위축 청소년들을 하위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는 한국 청소년들의 수줍음, 비사교성, 회피, 고립의 특성을 4개의 연속적 변인 형태로 측정하므로, 이러한 척도를 통해 얻는 점수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을 분류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기준을 확립하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대학생용 사회적 선호 척도를 개발한 Nelson(2013)

의 연구도 각 척도별 표본 분포를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위축된 대학생들을 분류하고 각 분류집단의 임상적 특성을 탐색하였을 뿐 다른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는 실증적인 분류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요인 점수에 기초한 실증적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타당성을 확립하는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사회적 위축은 아동기 내재화 문제의 일환으로 주로 부정적 관점에서 연구되었고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나 그 이후의 사회적 위축이나 ‘홀로있음(혹은 고독, solitude)’ 경험이 때로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예컨대, 고독이 자기결정적 선택을 반영할 때, 우울증상이나 신체증상은 오히려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들(임아영, 이준득, 이훈진, 2012; Larson & Lee, 1996)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접근 및 회피의 사회적 동기 외에도 인본주의적 동기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분류, 측정하고 이해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터키에서 수행된 최근 연구(Özdemir, Cheah, & Coplan, 2015)에서는 서구권과는 달리 암묵적인 사회적 관습에 의해 자신의 욕구보다는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절제형(regulated type)’이 기존의 세 유형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축으로 의미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러한 유형을 측정하는 척도를 번안해서 국내 중학생에게 적용한 후 요인분석한 국내 연구(공미정, 2016)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유형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포괄하는 척도 개발의 필요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는 지역적으로 영남권에만 국한된 표본, 청소년 초기에 있는 중학생 표본만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지역적으로 다른 표본, 그리고 고등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 하는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사회적 선호 척도는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의 발달적 양상과 하위유형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하게 기술하고 사회적 고립 같은 관련 경험이나 다양한 범위의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유용한 연구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공미정 (2016). 중학생의 사회적 위축과 괴롭힘 피해의 관계: 지각된 학급풍토의 조절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근영 (1994). 자기검색과 수줍음이 또래인기에 미치는 영향: 초기청소년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혜연 (2008). 유아기 또래괴롭힘의 피해에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언어능력, 사회. 정서적 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유아 관계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노혜숙 (1997). 수줍음, 자기개념 및 또래인기의 관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기원 (2014).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5(1), 1-15.

송지준 (2015).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세기사.

신현숙, 송중화, 김현주 (2005). 대입수험생의 학업 스트레스, 비판성 및 사회적 위축의 관계모형검증. 教育研究, 28, 121-142. 전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오경자, 하은혜, 홍강의, 이혜련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라아카데미

윤미설, 이동형 (2015).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사회정서적 기능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301-326.

이규미 (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13(1), 147-162.

이동형 (2014). 학교폭력의 평가와 진단.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편 "학교폭력과 괴롭힘 예방: 원인진단과 대응" 중 10장. 서울: 학지사.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 (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

- 성과 부적응. 서울: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정윤, 최정훈 (1994). 사회불안증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1, 583-598.
- 임아영 (2010). 자기결정적 고독과 성격 및 심리적 건강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아영, 이준득, 이훈진 (2012). 자기결정적 고독과 성격 및 심리적 건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1(4), 993-1021.
- 장승민 (2015). 리커트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사용.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4(4), 1079-1100.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경미, 신민정, 강지현, 김은성 (2013). 남자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문제의 하위발달경로 확인: 성장모형을 적용한 2년간의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77-197.
- 한상희, 박 경 (2005). 청소년의 애착유형과 대인불안 및 우울과의 관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심리치료*, 5(1), 43-61.
- 허정화, 김진숙 (2014). 청소년 외로움 척도 개발과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549-1570.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u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u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 M., & Rescorla, L. A. (2001). *Manual for the ASEBA School-Age Forms & Profiles*.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Youth, & Families.
- Asendorpf, J. B. (1990). Beyond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peer avoidance. *Human Development*, 33, 250-259.
- Asher, S. R., & Weeler, V. A. (1985). Children's loneliness: A comparison of rejected and neglected peer statu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4), 500-505.
- Bowker, J. C., Markovic, A., Cogswell, A. & Raja, R. (2012). Moderating effects of aggression on the associations between social withdrawal subtypes and peer difficulties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8), 995-1007.
- Bowker, J. C., & Raja, R. (2011). Social withdrawal subtypes during early adolescence in India.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201-212.
- Burger, J. M. (1995). Individual differences in preference for solitud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9(1), 85-108.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2), 330-339.
- Chen, X., & French, D. C. (2008).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cultural contex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591-616.
- Coplan, R. J., & Rubin, K. H. (2010). Social withdrawal and shyness in childhood: History, Theories, Definitions, and Assessments. In K. H. Rubin & R. J. Coplan (Eds.), *The*

- development of shyness and social withdrawal* (pp. 3-2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plan, R. J., & Weeks, M. (2010). Unsociability in middle childhood: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s with socio-emotional functioning. *Merrill-Palmer Quarterly*, 56(2), 105-130.
- Coplan, R. J., Prakash, K., O'Neil, K., & Amer, M. (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Psychology*, 40, 244-258.
- Coplan, R. J., Rose-Krasnor, L., Weeks, M., Kingsbury, A., Kingsbury, M., & Bullock, A. (2013). Alone is a crowd: Social motivations, social withdrawal, and socioemotional functioning in later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9(5), 861-875.
- Garrison, C. Z., Addy, C. L., Jackson, K. L., Mckeown, K. L., & Waller, J. L. (1991). The CES-D as a screen for depression and other psychiatric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0(4), 636-641.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F.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 Hymel, S. & Rubin, K. H. (1985). Child with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kills problems: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developmental issues. In G. J. Whitehurst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2. Greewish, Conn.: JAL press.
- Kazdin, A. E. (1986). Comparative outcome studies of psychotherapy: Methodological issues and strateg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1), 95-105.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6).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in children aged three to six: The Short Form. *Psychological Assessment*, 8(4), 368-377.
- Larson, R., & Lee, M. (1996). The capacity to be alone as a stress buffer.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5, 59-68.
- Liu, J., Coplan, R. J., Chen, X., Li, D., Ding, X., & Zhou, Y. (2014). Unsociability and shyness in Chinese children: Concurrent and predictive relations with indices of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23, 119-136.
- Nelson, L. J. (2013). Going it alone: Comparing subtypes of withdrawal on indices of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in emerging adulthood. *Social Development*, 22(3), 522-538.
- Olweus, D. (2007). *The Olweus bullying questionnaire*. Center City, MN: Hazelden.
- Özdemir, S. B., Cheah, C. S. L., & Coplan, R. J. (2015).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multiple forms of social withdrawal in Turkey. *Social Development*, 24(1), 142-16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ubin, K. H., Coplan, R. J., & Bowker, J. C. (2009).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141-171.
- Rubin K. H., & Mills R. S. L., (1988). The many faces of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916-924.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원 고 접 수 일 : 2016. 06. 24.

수정원고접수일 : 2016. 08. 18.

최종게재결정일 : 2016. 08. 25.

## Korean Adaptation of Social Preference Scale for Adolescents

Wonhee Kim

Donghyung Lee

Moonje Kim

Yoonju Nam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and validated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Preference Scale(K-SPS) for adolescents. Items from Social Preference Scale - Revised (Bowker & Raja, 2011) and Emerging Adult Social Preference Scale (Nelson, 2013), which are self-reported measures of three subtypes of social withdrawal (shyness, unsociability, and avoidance) and social isolation, were adapted into Korean and were validated with 4 samples of 985 adolescents at 11 middle schools in Northeastern region of South Korea. Exploratory factor analyses generated a four-factor solution and subsequent confirmatory analyses with another independent sample confirmed the four-factor model of the K-SPS of 20 items, including isolation, avoidance, shyness, and unsociability. Each factor demonstrated an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all factors were interrelated but distinguishable as they were positively correlated one another at low-to-moderate levels. Criterion-related validity of the K-SPS was demonstrated by significant and predicted patterns of bivariate correlations of each factor with various indices of socio-emotional maladjustment, such as depression, interpersonal anxiety, loneliness, bullying and victimization, as well as with an extant self-report measure of social withdrawal, K-YSR. Further,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was demonstrated when each factor from the K-SPS was strongly correlated with another measure of a similar construct and had weaker correlations with measures of other distinct constructs. Finally, test-retest reliability was also found adequat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our findings were fully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Key words* : social withdrawal, social isolation, shyness, avoidance, unsociability

부록 1. 한국판 중학생용 사회적 선호 척도 문항

고립	9.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지만 나를 잘 끼워주지 않는다.
	1.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지만, 다른 아이들이 나와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5.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도 다른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
	13. 가끔 아이들은 나와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2. 다른 아이들이 놀 때, 나는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 맴돌기만 한다.
회피	19. 나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역채점)
	15. 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역채점)
	7. 선택할 수 있다면, 혼자 노는 것보다는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이 더 좋다. (역채점)
	3.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 때, 제일 즐겁다. (역채점)
수줍음	20.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긴장하는 편이다.
	21. 다른 아이들과 파티나 모임을 할 때 긴장이 된다.
	17. 나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다.
	4.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막상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긴장이 된다.
	16.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고 싶지만, 잘 놀 수 있을지 가끔 걱정이 된다.
비사교성	8. 가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가 놀 기회를 거절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이다.
	14.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필요를 별로 못 느낀다.
	6.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보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다.
	2. 혼자서 시간을 보내더라도 나는 괜찮다. (삭제됨)
	18. 나는 혼자 있어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와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10.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정말 싫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좋다.	
11.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항상 혼자 노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